

보도일자: 2024.11.7.(목)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 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 작가 3인 선정	7쪽	있음	www.ggcf.kr	부서 : 예술지원팀 담당 : 김한솔 전화 : 031-231-7234

##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 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 작가 3인 선정

- ▶ 김솔, 김이듬, 배수아 3인 선정
- ▶ 문학 분야 경기 중견작가의 작품세계 집중조명 및 신작 창작활동 지원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9월 10일, 경기도형 기초예술 집중지원의 일환으로, 문학 분야에서 경기도 중견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2024 경기 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 작가로 김솔(사진1), 김이듬(사진2), 배수아(사진3)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근 10년간 경기문화재단 문학 분야 정기공모사업에 선정된 373명의 작가군 중에서, 등단 10년 이상의 경기도 중견작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사는 과거 및 현재의 작품활동 이력과 2026년까지의 신작 창작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작가 역량, 예술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는 문학평론가 등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선정위원단은 “선정된 3명의 작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한국 문학의 깊이를 심화하고 지평을 확장해 온 작가들로, 각각의 언어와 사유, 그리고 실제 다양한 문학현장에서의 실천과 독창적인 작품 세계의 확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제의식의 깊이와 개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선정 작가에게는 작가당 1천 5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지며, 전문 비평가와의 매칭을 통한 작가 및 작품 프로모션, 2026년 내 발간 예정인 신작 출간을 위한 북콘서트 등 다양한 조명 행사도 지원될 예정이다.

## 1. 김솔 작가



1) 등단 : 2012년(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내기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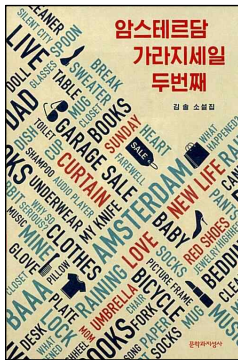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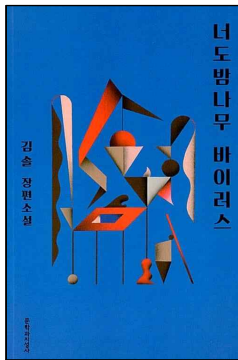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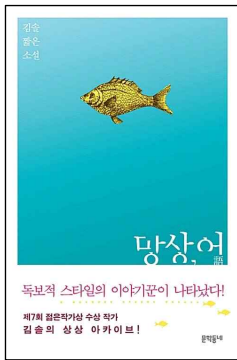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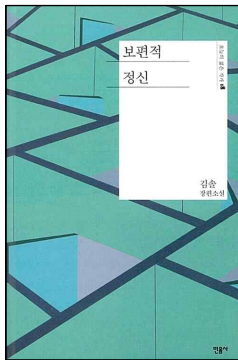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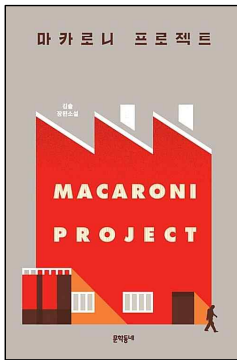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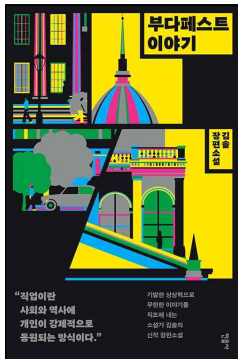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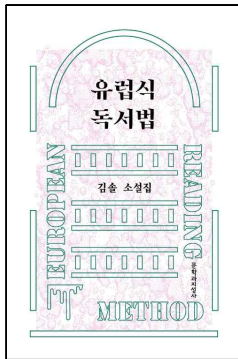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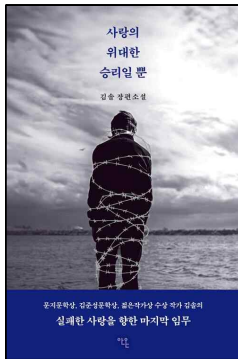
### 2) 작가 소개

1973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2012년 한국일보 신춘 문예 소설 부문에 <내기의 목적>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문지문학상> 심사위원은 단편소설 <소설 작법>을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우리 시대의 증후 찾기와 증후 풀기를 위해 서사의 매듭 짓기를 현묘하게 수행하는 작가”라고 평가했고, 2014년 발표한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는 “소설의 독자가 사라진 시대의 소설의 운명을 점치는 소설”이라는 상찬으로 제22회 <김준성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작(공동 수상)으로 선정됐다. 2016년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유럽식 독서법>에 “그는 서사를 ‘해체’할 생각도 없고, ‘소설가의 소설’을 쓸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소설의 소설’을 쓴다고 해야 할까.”라는 평론가의 해설이 붙었다. 작가는 등단 전부터 지금까지 문학과 전혀 연관 없는 회사 생활을 병행하면서 새벽 3시에 기상해 무위와 무명에 저항할 무기를 버리고 있으며, 투고와 퇴고를 반복하고 있다.

### 3) 주요 작품 목록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세일 두 번째』(2014) 『망상,어語』(2017) 『살아남은 자들이 경험하는 방식』(2020) 『유럽식 독서법』(2020) 『당장 사랑을 멈춰주세요, 제발』(2021) 『말하지 않는 책』(2023), 장편소설 『너도밤나무 바이러스』(2017) 『보편적 정신』(2018) 『마카로니 프로젝트』(2018) 『모든 곳에 존재하는 로마니의 황제 퀴에크』(2019) 『부다페스트 이야기』(2020) 『사랑의 위대한 승리일 뿐』(2023) 『행간을 걷다』(2024) 등

#### 4) 대표작품 이미지



## 2. 김이듬 작가



1) 등단 : 2001년(계간 <포에지> 시 부문 『달에 씻다 외 4편』)

### 2) 작가 소개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계간 『포에지』로 등단한 이후, 시집 『별 모양의 얼룩』, 『명랑하라 팜 파탈』, 『말할 수 없는 애인』, 『베를린, 달렘의 노래』, 『히스테리아』, 『표류하는 흑발』,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 『투명한 것과 없는 것』을 비롯해 장편소설 『블러드 시스터즈』, 산문집 『모든 국적의 친구』, 『디어 슬로베니아』, 『안녕, 나의 작은 테이블 이어』를 펴냈고, 연구서적 『한국현대페미니즘 시연구』가 있다. 세 권의 책이 번역되어 영역 시집 『CHEER UP FAMME FATALE』, 『HYSTERIA』와 폴란드어 번역 시집 『HISTERIA』, 그리고 영역 장편소설 『Blood Sisters』가 출간되었다. 해외에서 한국 시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여러 차례 가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견작가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한 학기,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며 생활했다. 2017년 미국 AWP 참석 이후, 미국 7개 도시에서 낭독 투어를 진행했고, 중국 복건성

국제 시 페스티벌과 프랑스 발드마른 비엔날레의 초청으로 낭독회를 가졌다. 2019년 4월에는 덴마크 예술재단의 초청으로 코펜하겐 국제 시 낭독회와 세미나, 스웨덴 국립박물관에서 한국 여성 시 낭독회에 참석했다. 2019년 11월에는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문학축제에 초청되어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한국 문학을 알렸다. 2020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미국 출판사 'DEEP VELLUM' 주최, 한국문학번역원 후원으로 영역 소설 『Blood Sisters』 텍사스 투어 낭독회를 진행했다. 2022년 6월에는 로테르담 인터내셔널 포에트리 페스티벌, 같은 해 7월에는 베를린 인터내셔널 포에지 페스티벌, 9월에는 폴란드 시 축제 트랜스포트 리터라키 초청 작가로 활동하며 한국 시의 미학과 위상을 널리 알렸다. 시와 세계작품상, 김달진창원문학상, 올해의 좋은 시상, 22세기문학상, 김춘수 시문학상, 전미 번역상(아시아 최초),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 양성평등문화인상, 시산맥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20여 년 동안 경상대학교 시간 강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했으며, 일산에서 6년간 동네책방 '책방이름'을 운영했다.

### 3) 주요 작품 목록

시집 『투명한 것과 없는 것』(2023) 『몇 세기가 지나도 싱싱했다(공저)』(2022)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2019) 『표류하는 흑발』(2017) 『히스테리아』(2014) 『베를린, 달렘의 노래(북간)』(2013) 산문집 『먹고살고 글 쓰고(공저)』(2023) 『모든 국적의 친구』(2016) 『디어 슬로베니아』(2016) 등

### 4) 대표작품 이미지



### 3. 배수아 작가



1) 등단 : 1993년(계간 <소설과 사상> 소설 부문 『천구백팔십팔년의 어두운 방』)

#### 2) 작가 소개

1.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였다. 문학 수업을 받은 이력은 없지만, 1993년 잡지에 우연히 투고한 단편 <천구백팔십팔년의 어두운 방으로>로 작가로 데뷔하게 된 후, 작가로서의 글쓰기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1년, 1년 동안 독일에서 생활하며 모국어와 글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실험적인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를 넘어 실험문학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전업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 배수아는 독일어 번역 작업도 병행하며, 카프카, 로베르트 발저, 엘제 라스커 솔러, 토마스 베른하르트, 예니 에르펜벡 등의 독일 문학을 번역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작품들도 해외에 번역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3년에 출간된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는>은 영어, 독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덕분에 여러 해외 레지던스에 초청받기도 했다. 또 다른 작품인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는 일본에서 번역되어 긍정적인 서평을 받았다. 배수아 작가는 현재도 실험적이고 깊이 있는 문학 세계를 탐구하며, 독자들과 소통하는 글쓰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 3) 주요 작품 목록

소설집 『속삭임 우묵한 정원』(2024) 『서울의 낮은 언덕들』(2011) 『북쪽 거실』(2009) 『독학자』(2004) 『에세이스트의 책상』(2023)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2019)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2013) 『철수』(1998) 『뱀과 물』(2017) 『올빼미의 없음』(2010) 『홀』(2006) 『당나귀들』(2005) 『바람인형』(1996) 산문집 『작별들 순간들』(2003) 등

#### 4) 대표작품 이미지

